

우리금융 아트홀



신동재 건축사와의 인터뷰는 또 다른 경험이었다. 특히, 묵묵히 자신의 건축을 진행해 온 그의 노력이 매우 존경스러웠다. 공연장을 위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으며, 일부 건축사들이 자신을 언론 등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는 매우 다른 건축사였다.

신동재 건축사를 인터뷰 하면서, 건축사지의 임무 중 하나가 이런 건축사를 세상에 많이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그의 좋은 건축을 기대하며, 또 신 건축사처럼 진지하며, 지속적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많은 건축사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박인수(이하 박) : 안녕하세요, 오늘 이루어지는 본 인터뷰의 취지를 설명 드리자면, 대한건축사협회의 기관지 '건축사'지에서 소개되는 많은 회원들의 건축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선정해 인터뷰를 통하여 다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내보자는 것입니다. 그간 국내 건축 잡지들이 건축 작품의 작품성 중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분야에 집중하였던 것을 넘어보자는 뜻으로 실무에서의 편집위원인 저와 학교에 계신 유정훈 교수님께서 한 팀이 되어 시리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유정훈(이하 유) : 부연하자면, 저는 건축사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이 잡지가 많은 건축사들이 함께 읽는 내용이니 만큼 나누며 참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고, 또 그것이 나누어지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나 신 건축사님께서 경험한 일들을 잘 소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 :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건축 건축사사무소의 규모가 매우 다양합니다. 1,0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한두 명이 꾸러나가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신 건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

한 규모는 어떤 규모일까요? 결국 규모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 신동재(이하 신) : 우리나라에도 1,000명 사무실이 있긴 하지만, 저도 큰 회사와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파워풀한 면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국내의 설계비 기준이 낮고, 수주 과정을 본다면, 일단 규모가 커야 수주하기 용이하고, 수주하기 용이하면 또 운영하기에 편리한 면이 있으니까요, 수주를 성공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새로운 수주를 준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사업당 충분한 용역비가 주어진다면 사무실의 인원이 그렇게 늘어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급하게 수주를 위해 무리한 업무를 진행할 필요도 없어 보이지요. 물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꼭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설계비와 그에 따른 업무영역(scope of works)이 소위, 선진국처럼 잘 정해져 있다면 비용과 하는 일의 내용이 정해지므로 1,000명 규모 사무실까지 커질 필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설계비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적정하게 지급된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수주에 나설 필요가 없어 지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20~40명 정도가 1인 건축사가 혼자 설계하

인터뷰 일자 2010년 3월 30일 오전 11시

장 소 (주)다울 건축사사무소, 신동재 건축사실

참 석 자 (주)다울 건축사사무소 신동재 건축사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훈 교수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면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 규모를 유지하려면 역량있는 건축사가 적어도 20~30명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사사무소가 우리나라에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들과 소형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니까요.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짓고자 설계를 의뢰하려는데, 맡길 만한 적절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대략 스무 명 정도 사무실이 50개 있는 것이 1,000명 규모의 사무실 하나 있는 것 보다 사회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 오십 명 규모의 사무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운영하기는 좀 힘들지요. 하지만 그 정도 규모면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무 명 정도 있습니다.

• 유 : 그렇다면 40명 이상의 규모가 되면 한 건축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사무실을 넘어선 파트너십이 되거나, 누구 and 누구 이런 식의 사무실이 되겠네요. 뚜렷한 리더가 없어 다수의 건축사가 모인 곳이라면 건축사 개인의 작품성이나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또 포기 될까요?

• 신 : 저희 다울의 경우에도 시작할 때는 파트너가 있었다가 몇 해 전에 분리되었는데, 당시에 저희도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파트너십의 경우 미국의 과쓰미와 시겔(Gwathmey and Siegel) 같은 경우가 매우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설계하면 한 사람이 크리틱(critic)을 하여 역할 분담을 하고, 대신 프로젝트에 대한 크레딧(credit)은 매우 분명한 것이지요. 저는 건축사사무소가 대형화되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가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축물이 자기 지식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건축사가 설계를 진행할 때 모든 운영도 주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면 역할의 분담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분담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양보하기 힘든 것이지요. 결국 한 건축사가 30~40명 정도의 인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에는 수주가 참 힘들어지고 그 규모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져 결국 그 분야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지겠지요.

• 박 :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울 건축이란 이름을 쓰고 계신데요. 무슨 뜻인가요?

• 신 : 한글 이름입니다. 다울은 '답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이 나쁜 것에는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남자답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당당하게 어울리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어울리는 건축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튀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잘 어울리는 건축을 지향한다는 것이지요. 굳이 영어로 의미를 살펴보자면 'Derive Architecture from Urban Language' 즉, 도시의 언어에서 건축을 도출하자는 뜻도 포함합니다. 또 '울'은 서울에서 따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의 마스코트 이름이 '다울'이더라고요. 그곳에서의 의미를 보니까 '다같이 함께 사는 우리'의 뜻이던데요. 뜻도 뜻이지만 발음도 좋고, 부르기 편한 느낌이 있어서 '다울'로 정했습니다.

• 박 : 명함에 보니 감리 컨설턴트라고도 적혀 있는데, 감리전문회사는 아닌가요?

• 신 : 감리전문회사를 했다가 그만 두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었어요. 물론 감리전문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요. 저도 저희가 설계한 김해문화회관과 몇 군데 감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감리를 안 하는 게 어디 있는가?'는 식의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저희 건물을 보호하려 했었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별로 의미가 없 어지더라고요. 회비만 자꾸 내야하고.

• 박 : 그동안 하신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고, 공공이거나 준 공공 프로젝트들이 많으셔서 현행법상 직접 감리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 신 : 민간 프로젝트였다면 저희가 감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공공은 감리를 별도로 입찰을 통해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입찰할 때 설계한 사람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게.

• 박 : 설계한 사람들은 그런 황당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건축주 측에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준에 보면 설계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외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우리 건축사의 일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단계별 진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 :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기본설계는 엔지니어링이 시작되니까 설계비를 청구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중요한 측면이 있지요. 물론 그 전에는 협력분야는 자문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설계의 단계는 Process라기 보다는 Praxis(관행)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중첩되고 Feed Back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야 설계비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요. 미국에는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발주처도 자신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품질을 확보할 수도 있는 방안으로 삼을 수 있는 거지요.

• 박 : 그렇습니다. 저도 참 동감입니다.

• 신 : 그러니까 국내의 발주처도 참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던지 같은 것을 보면 설계사무소를 믿지 못해서 자체 설계팀을 또 가동시켜요. 설계비를 조금밖에 못주니까 다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실시설계를 위해서 설계팀을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입니다. 비용으로 보면 거의 국내에서는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종으로 비용이 들고 건물이 이상하게 지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결과물인 건물의 품질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실시설계에서 퀄리티가 만들어 져야 할 텐데...

• 박 : 그렇군요. 설계비를 사실 설계하는데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그 총액이 너무 작아 실시설계가 완전하지 못하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걸 다시 건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네요.

• 신 : 또 재미있는 것은 공공의 건축상 중 어떤 상은 공공건물과 일반건물부분이 나누어져 있어요. 당연한 것이 섞어 놓으면 공공건축이 상을 못 받아요. 가보면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정도로 조악한 경우가 많아요. 민간건축에선 가끔 잘된 건물이 나와요. 설계도 제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감리도 하고, 시공사도 열정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건축주도 건물이 진행되면서 품질을 위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지요. 하지만 공공건축은 융통성도 없고, 계약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건축이 잘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 공공건축은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 박 : 그렇지요. 공공건축이 모범이 되어야겠어요.

• 신 : 그런데, 왜 민간에서는 평당 500만원으로도 잘 짓는데, 공공에서는 평당 1,000만원으로도 잘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 하지만, 공공에서는 가격을 높여서라도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민간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니까, 민간에서 짓는 건물보다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다른 생각은 공사비가 낮다고 나쁜 건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짜 하나, 창문 하나만 잘 지정해도 품질이 좋아지는데,** 공공에선 그런 걸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박 :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데, 시간상 또 다른 질문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간 15~6년간 사무실을 운영하셨는데, 그간 지내시면서 가장 좋았다는 것과 가장 어려웠다. 혹은 나빴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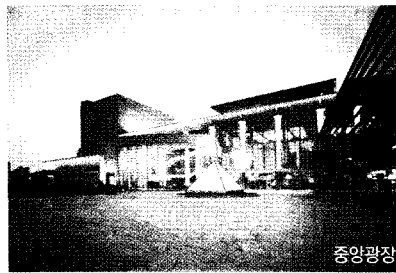
• 신 : 흔히 우리 같은 사무실을 '수렵'이라고 합니다. '농경'이 아니고, 농경을 하는 사무실도 있지만요, 수렵을 하는 사무실은 일이 잘 되도 문제예요. 어떨 때는 뭐 경기가 좋아져서,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사람이 부족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무실도 다 잘되니까요. 또 반대로 일이 없으면 매우 힘들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만들어진 일을 수행하기 매우 힘이 들어요.

• 박 :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가장 좋았던 일은 어떤 것일까요?

• 신 : 역시 현상에서 당선되는 것이지요. 그간 일 년에 너댓 개는 당선된 것 같아요.

• 유 : 그중 초기의 대표적인 당선작은 무엇입니까?

• 신 : 김해의 김해문화회관으로 1997년도에 현상에 당선하였고,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상도 많이 받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지요. 연면적 13,500평 정도 되고, 1,500석 객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수영장, 병상장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MBC방송국이나 서울대 학생문예관 등을 했었지만 제가 최초로 대규모 공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소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현상에 당선된 것이라, 아마 발주처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30대 건축사가 당선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뽐하고 나서 'IMF 외환위기'가 왔어요. 설계가 약 2년 정도 중단 되었지요. 2000년에 재개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다행스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연구소 건물이 또 하나 당선이 되어서 외환위기를 잘



중앙광장



로비



조강도



마루홀

김해 문화회관

넘겼고, 문화회관이 중단된 동안에 전 세계의 공연장을 답사할 수 있었어요. 약 20개 정도의 최신 공연장을 직접 보고서 공부할 수 있었고, 당시 지어진 서울의 LG아트센터도 매우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연장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만일 당시 설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면, 또 하나의 문제작(?)을 만들 뻔 했었지요. 덕분에 공연장에 대해선 많이 공부하고, 김해문화회관으로 보서는 다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

• 박 : 혹시 이 사무실이 차별화되거나, 특징이 될 만한 무엇이 있을까요? 설계 작품에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 신 : 글썄요, 우선 특징은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있구요(웃음). 저희는 주로 현상설계를 통해 일을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간의 고정고객이 없다보니, 경제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관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고정고객이 있는 경우는 경제 위기에서는 고객의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함께 나빠져야 하는 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정고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내의 연구동과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약 9~10개 했는데, 물론 현상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주)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청사와 복지시설 사택 연구동을 10여 년 동안 15개 정도 현상설계를 통해서 당선되어 진행하였습니다.

• 박 : 혹시 당선되는 확률 같은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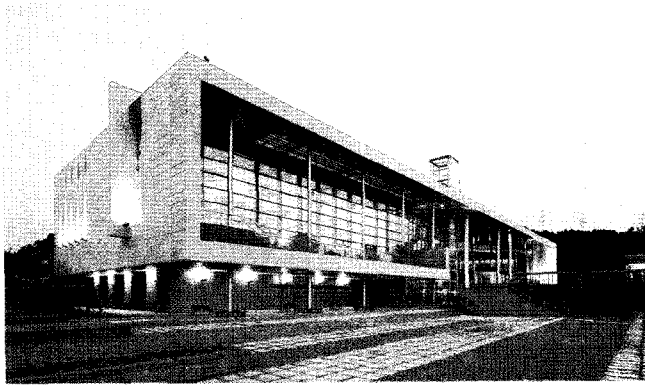
• 신 : 1/2, 1/3정도의 확률일 것 같습니다. 그 이하로 되면 저희 같은 사무실은 어렵게 됩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박 :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현상은 없을까요?

• 신 : 또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인데요. 건축학회에서 주는 이원환경건축상의 대상을 수상했었지요.

• 박 : 이 건물은 왜 다올건축에서 중요한 건물인가요?

• 신 : 이게 '친환경'이란 주제로 건물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대



고리 스포츠문화센터

지는 20,000평정도 되는데, 건물은 3,000평 정도이구요, 전체적으로 물을 재활용하고, 자연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풀어냈지요.

• 유 : 이런 것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쌓였겠네요.

• 신 : 물론 조경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고요, 공조 통로의 쿨 튜브(Cool Tube)라든가 자연환기와 목재데크 수평루버 같은 것을 도입 했어요, 실현되진 않았지만 설계시에는 발전소의 온배수를 난방과 수영장에 사용하려 했었지요, 지금은 많은 컨설팅 회사가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들이 공연장도 있지만 주로 연구소, 실험실같이 어려운 건물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건축주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전이나 한수원 같은 에너지 회사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실시설계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진행이 가능하지요, 저는 불안해서 외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가가치로 보면 이득이 별로 없는데, **건축을 완성하는 측면에선 스스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 : 당연한 말씀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실시설계를 외주처리하는 것이 무방한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고, 또 직원들이 실시설계를 껴리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다음 건축은 어떤지요?

• 신 : 저희 직원들은 그 점에서는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이 주로 외주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건축을 생각한다면 좋지 않은 경향인 것 같습니다. 큰 사무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 직원들이 부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설계해 지어 진 건물에 직접 가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보면 저희는 할 말이 많지요, "이게 뭐냐?", "다음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요, 서로 간에 보면서 이야기 할 수 있지요, 대부분은 **도면이 부실할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 박 : 그렇다면 가장 나쁜 시절은 언제였나요?

• 신 : 요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수주도 그렇고, 경제위기 여파도 있고, 전체적으로 건축계가 최고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나, 학생들이 희망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것, 이런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 박 : 아~ 건축분야 졸업생들 말씀이군요.

• 신 :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잘 닦아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처럼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Role Model 이 없는 거지요.** 뭐 선배들이 설게 잘한다고 하면 교수가 되어있거나,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나(물론 그게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해서 자기 이름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또 있다 해도 운영이 잘 안되어 매우 어려우니 학생들이 희망이 안 생기는 거지요. '저런 선배도 잘 안되는데, 나라고 잘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졸업할 때만 해도 취직에 별 문제가 없었고, 또 일 좀하다 면허를 받고, 고향에 내려가면 지역의 유지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류의 막연한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참 어려운 거지요.

• 박 : 동감이 많이 되는데요, 혹시 직원과 회사의 관계에서 어떤 직원들이 바람직한 좋은 직원이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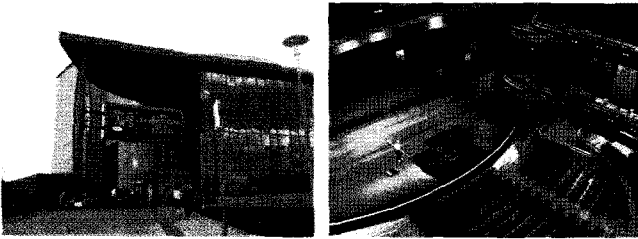
• 신 : 글썄요 뭐 직원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고, 직원이 잘되면 회사도 잘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훌륭한 직원이라 하면 스스로 자기할 일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래야 서로 윈·윈 할 수 있거든요.

• 유 : 하신 작품들을 보면 공연장으로 매우 특화된 것 같은데, 김해 문화회관 당선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공연장이라는 게 그리 많지 않았던 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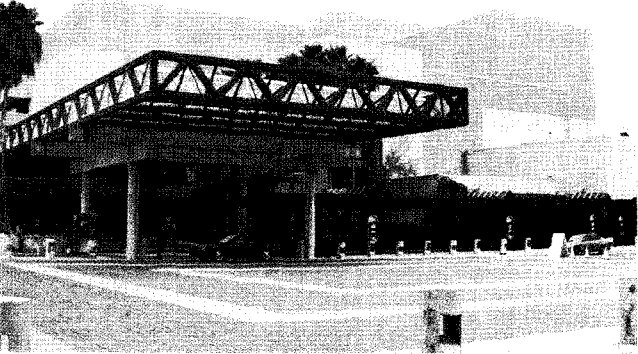
• 신 : 제가 1995년도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 일건에 7년 있었고, 일건에서 나오기 전에 박사학위를 시작했지요, 서울대학교의 김진균 교수께서 지도교수셨고, 논문은 10년만인 2004년도에 썼는데, **주제가 공연장이었습니다.** 국내 공연장들이 문제가 있어요, 회관이란 것들이 사실상 기능을 잘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선진국으로 될수록 공연장에 대한 욕구는 원초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유럽의 경우는 부모와 학생들이 주말에 연극 같은 것 보고 토론하고, 일본의 경우도 퇴근하고 콘서트 보고 집에 가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에 적절한 공연장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뮤지컬 같은 것이 국내에서 활성화 되고 있지요, 영화에 밀리는 연극처럼 오페라 같은 것이 현재 시장에서 뮤지컬에 밀리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페라는 매우 많은 인원이 출연하기 때문에 관객과 출연자 수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페라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한 국가에 오페라 홀 하나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연장이 전문 분야라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참 걸리는데...

• 박 : 그렇다면 먼저 건축 이야기에 집중하고 문화적 이야기는 시간이 허락되면 하기로 하지요, 조금 전 김해예술회관 설계가 잠시 중단 되었을 때 전 세계의 공연장 순례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보셨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 신 : 우선 LG아트센터를 많이 참고 했고요, 관련해서 음향 컨설턴트들을 잘 알게 되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대음향 컨설턴트가 ARTEC이란 곳과 TPC란 곳이 있어요, ARTEC은 음향위주의 컨설팅을 하고 TPC는 무대전반적인 컨설팅을 하지요, 그 중 ARTEC이 컨설팅 했던 곳을 중심으로 답사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신국립극장도 3년



리빙 아트센터



탬퍼베이 Pac1

가랑 가 보았고, 미국의 뉴저지 퍼포밍 아트 센터(NJPAC), 터론토에 있는 리빙아트센터, 플로리다의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크라비스 센터(Kravis Center), 탬퍼베이(Tampa Bay)의 모사니 홀(Carol Morsani Hall) 등 주로 비슷한 규모의 적극적 다목적 공연장을 보게 되었어요. 유럽의 공연장들은 주로 전문공연장인데 비해 미국의 공연장들은 종합공연장인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예술가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다 보니, 그 수가 유럽에 비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종합 공연장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 박 : 그럼 김해예술회관도 ARTEC과 함께 진행하셨나요?
- 신 :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참 어려웠어요. 이 분들이 건설

팅 비용을 견적했는데, 제가 받은 설계비 총액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전진용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아주 좋은 분이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요. 그때 전 교수님과 1/10 음향 모델을 국내최초로 만들었고, 비용이 없어서 공사비에서 충당 했었습니다. 순수한 의욕이 가득 찼었지요.

• 박 : 이제는 오늘의 주요 이야기거리인 '우리금융 아트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게는 매우 재미있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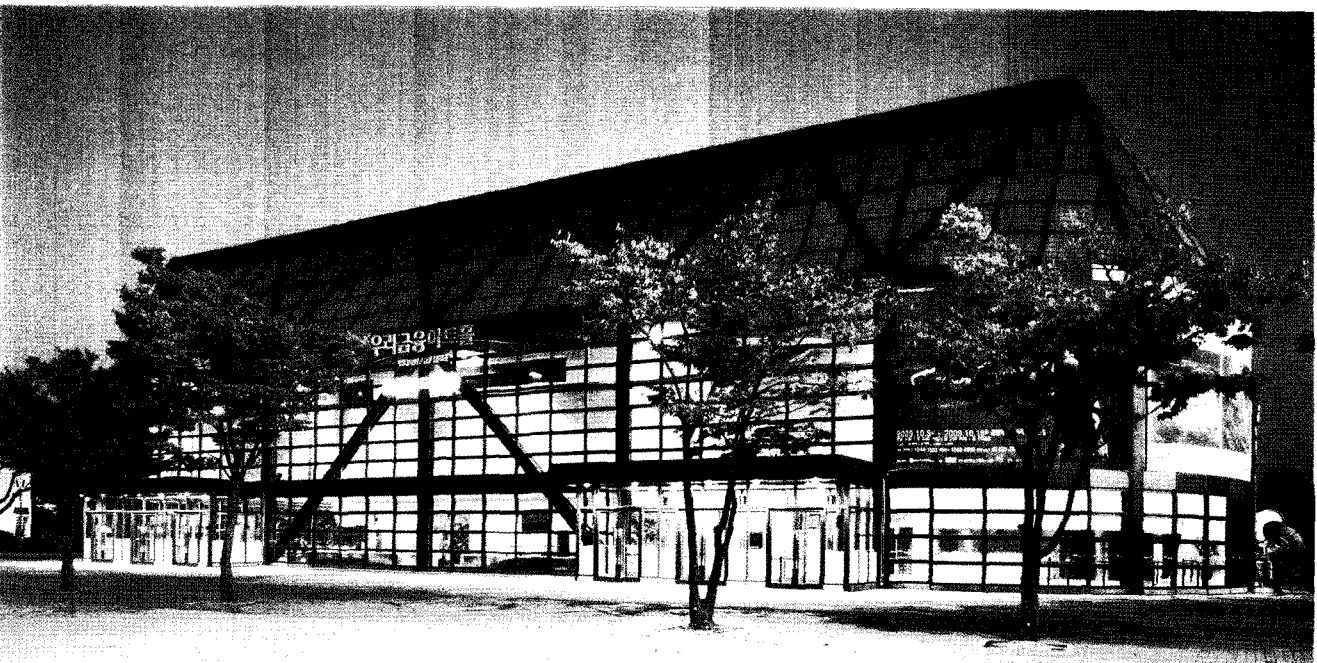
• 신 : 이게 원래 김종성 선생님이 설계하신 건물이고, 탁월한 디자인과 구조로 국제적인 큰 상도 받고 했던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외형을 건드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설계 지침이었습니다. 지침에서 공연장에서 중요한 플라잉 타워도 현재 건물의 지붕선 이하에서 만들어 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공연장 입장에서는 플라잉 타워가 높아야 좋았겠지만 그 이내에서 계획한 것을 봐도, 기존 건물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던 설계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 건물의 내부에서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는 게 신축보다 두 세배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박 :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비도 리노베이션이 훨씬 높지요.

• 신 : 하지만 이 경우 설계비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픈 현상을 한 것이고, 발주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었습니다.

• 박 : 그렇다면 이 건물의 이름을 '우리금융 아트홀'이라고 쓰는 이유는 관리, 운영주체의 이름을 딴 것인가요?

• 신 : 처음부터는 아니구요, 어느 정도 후에 발주처에서 건립비를 총당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지요. 네이밍을 상품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십 년 동안 건물이름을 쓰는 것으로 한 것이지요. 금융회사에서 문화에 기여하는 홍보를 효과적으로 잘 한 것이죠.



우리금융 아트홀

• 박 : 이 일은 누군가 기획을 하였을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을 기획하였던 분들이 이 건물의 위치나, 도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었나요?

• 신 : 여긴 공연장 자리로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역도경기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인데요, 여기에서 오래전부터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경기장들은 객석이 둘러쳐지고, 경기장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역도경기장은 처음부터 한 쪽 방향으로 경기장이 치우쳐져 관람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설계를 시작할 때는 처음 지어졌을 때 보다 많이 훼손되어져 있었습니다. 상부장이 구조가 노출되고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있는데 역도경기를 하다보면 석양이 선수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전체적으로 천정을 만들어 채광을 막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해결책으로 변형되었던 거지요. 다른 기본적인 조식은 제가 보기엔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어진 건물로 확인이 되었어요. 단위면적을 덮는 입체 트러스를 이용해서 투입된 철의 양이 매우 적었던 구조 체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건물이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문화시설을 두겠다고 하여 전 그 생각에 매우 찬성하는 바였습니다. 현재도 SBS에서 녹화장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주로 스포츠 관련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도경기를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어쨌거나 이 녹화장 덕분에 공연장에서는 뒷무대를 사용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곳에 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공연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연계가 편리했어요.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유리하고.

• 유 : 요즘 이 건물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 신 : 지금 뮤지컬 '선덕여왕' 같은 것도 합니다. 지금 보면, 공사비를 매우 적게 쓰고 진행했어요, 대략 150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가구까지 모두 포함되었어요. 연면적이 3,000평 정도니까 평당 500만 원 정도 사용된 것이지요. 제 평소의 생각으로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할 공간이었어요.

• 유 : 지금 올림픽 공원 내에 이 건물 말고, 체조경기장도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 신 : 기본적으로 체육관들이 전부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대중가수 공연이지요. 주로 전기음향으로 처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하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이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 : 치열한 경쟁에서 신 건축사님 안이 당선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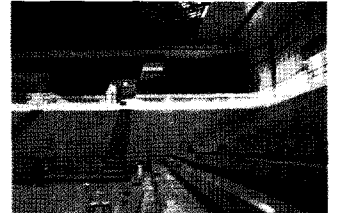
• 신 : 글썄, 제가 설계를 합리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안들은 약간 비틀기도 하였던 것으로 아는데, 저의 안은 기존 건축을 구조적으로 잘 활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 논문 주제이기도 한 인티머시(intimacy)이거든요. 공연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인티머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외국의 공연장들을 보면 그 평가에서 'great intimacy' 라는 표현이 최고의 평가로 자주 사용되고 그 느낌에 끌리게 되어서, 공연장 공부를 할수록 그 궁금증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사학위 주제로 삼았습니다.

• 유 : 기본적으로 공연장이라는 게 공연을 하고 관객이 그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인티머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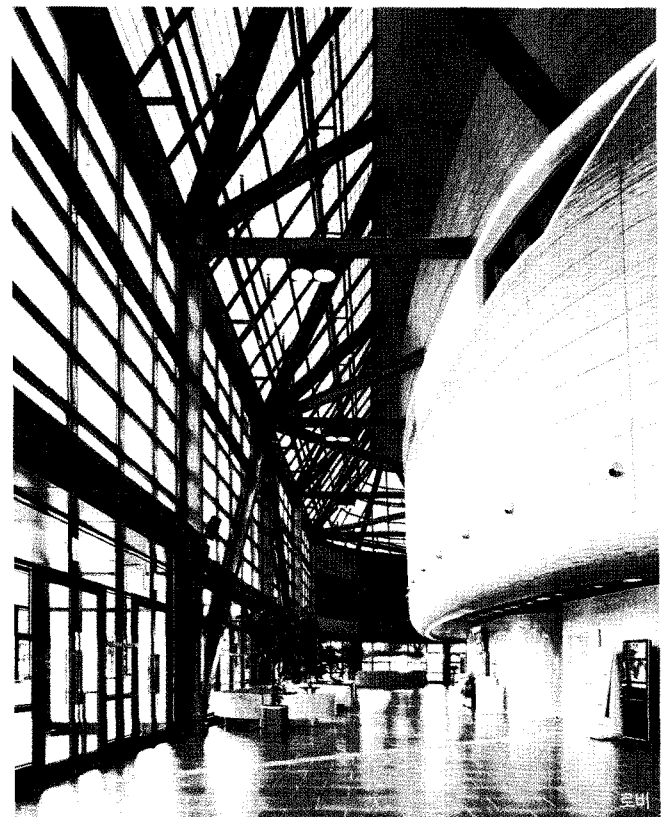
• 신 : 제가 인티머시를 공연장에서 정의한 게 물리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먼저 배우와 관객의 인티머시가 있지요. 매우 가까워야 해요, 공연의 내용이 관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것은 관객과 관객의 인티머시예요. 서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영화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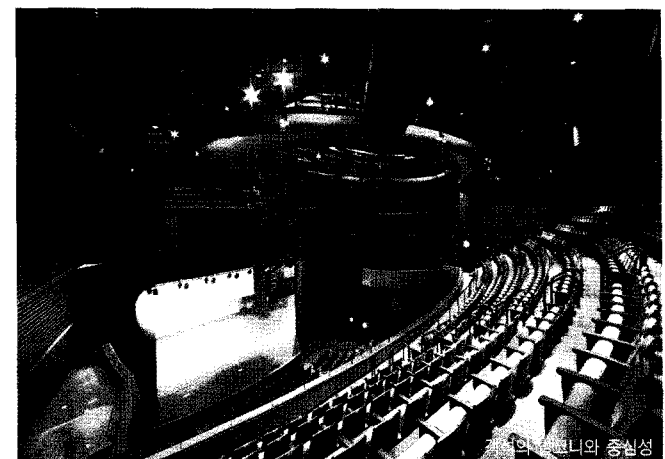
기존 역도경기장 로비



기존 역도경기장 내부



로비



의 공연의 중심성

우리금융 아트홀

것이지요. 영화는 다른 관객이 장애물이요, 개인이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갈 때는 화장도 안하고 모자 쓰고 가게 됩니다. 관객 상호간 일어나는 감흥은 없는 것입니다. 화면 잘 보이는게 제일 중요하지요. 하지만 공연은 관객간의 친밀도를 높여 입체적인 인터머시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와 관객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관객과 관객 사이의 관계가 그 관계를 보다 증폭시켜 다시 배우가 힘을 받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와 관객입니다. 공연장은 너무 모던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드라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장식이 좀 있어야 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공연은 영화와 달리 공연 중에도 객석에 약간의 전등을 켜둡니다. 약간 음침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 유 : 캣츠(Cats) 공연을 보면 객석 쪽을 모두 검정으로 바르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연의 분위기상 문제겠지요...

• 신 : 맞습니다. 인터머시란 측면에서 관객과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객과 관객과의 관계를 본다면 객석이 똑바로 가면 안 됩니다. 휘어져야 서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객석수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관객 상호간 반응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객석의 호응이 나오면 매우 직접적으로 모든 관객이 반응하게 됩니다. 소위 '단뚝다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발코니들이 오래된 극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 유 : 그렇겠지요. 외국의 고전적인 극장들에서 그런 발코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 신 : 공연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일방적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대가 주도적이어서 객석에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공연입니다. 관객을 우민 취급하는 것입니다. 무대가 관객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하나 즉, 바로크 귀족들이 한 것은 무대보다 관객이 우위에 있었던 거지요. 귀족들이 무대를 내려다 보고, 상호 즐겼던 것이지요. 그러다 근대건축에서 민주적인 극장들이

있었고, 다시 현대에선 네오 바로크식 극장이라 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시민들이 돈을 내니까 귀족처럼 대우 받아야 한다는 이유지요. 그래서 말굽형 극장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호 교감이 매우 좋은 형식이지요.

• 유 : 국내엔 말굽형 극장이 없지요?

• 신 : 없어요. 공연문화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극장의 형태가 많고 영미쪽에는 옛 바로크식 극장이 많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나 독일 등 대륙의 극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대장치는 화려한데 관객의 교감은 약하지요. 교감은 발코니 등이 매우 중요하고, 또 공간도 너무 드라이하지 않게 장식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외부는 건축사에게 맡기고 내부는 무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유명 건축사가 설계한 극장치고 잘된 게 별로 없어요. 자기주장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극장 전문가들이 하면 외부는 모던 하더라도 내부는 다정하게 만들거든요. 저희 당선안을 보시면 객석의 중심에 동그런 천정이 있는데, 그것은 중심이 객석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장소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 유 : 뮤지컬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셨는데...

• 신 : 뮤지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래 저는 이것이 공연예술 중에서 좀 등급이 낮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언제부터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시대에 뮤지컬 같은 공연예술은 각광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뮤지컬은 시장에서 경비를 줄여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페라나 클래식 오케스트라 같은 공연은 매우 비쌀 수밖에 없어요, 가수나 배우들도 매우 비싸고, 인원도 많이 동원되어야 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요. 하지만 뮤지컬은 배우를 줄이고, 또 전자음향을 주로 사용함으로 많은 인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게 티켓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결국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환경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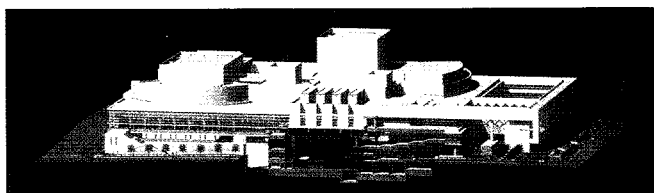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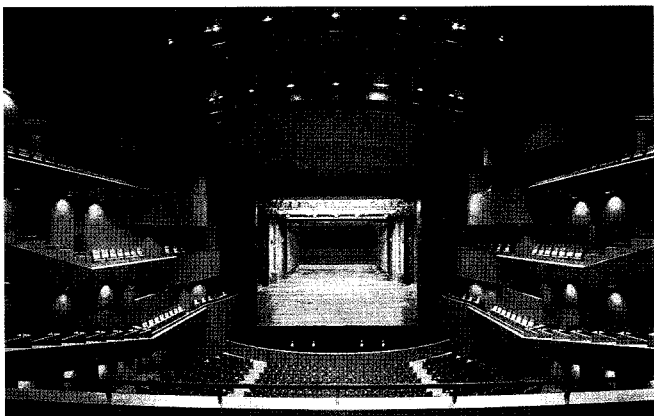
• 유 : 무대장치를 위한 시설은 어떻게 하셨나요?

• 신 : 모든 인프라를 제거하여 공사비를 줄였습니다. 공연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회전무대 등을 공연 기획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둔 것이지요.

• 박 : 이 건물의 리노베이션은 기초를 더 내리진 않았나요?

• 신 : 다행히 체육관이라 내부에 기둥이 없었기 때문에 파고 내려갈 수 있었어요. 기초를 하부로 더 내려서 무대하부와 객석 하부 금기를 위한 깊이가 확보 되었지요. 무대는 하부공간만 만들고 조립식으로 무대 바닥을 만들었지요. 비싼 무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공사비를 낮추는 대신, 연출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플라잉 타워의 배튼은 좀 아쉽습니다. 타워 안에 배튼이 꽂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반 밖에 못 채웠거든요. 나중에 넣을 수는 있지만 당장 공연하는 분들은 아쉬워하지요.

• 박 : 혹시 이 프로젝트가 공공프로젝트이니까, 설계비를 공개하실 수 있나요?



신국립극장

• 신 : 예, 대략 칠억 오천만원이었는데 너무 작았습니다. 그 안에 건축음향과 무대 컨설팅비로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었지요. 설계 난이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 손해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무대 컨설팅비를 책정한 건 잘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대로 무대와 음향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안 좋은 상황이 설계비를 산정할 때 컨설턴트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지요. 그렇게 되면 전자음향, 무대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막 제안해요. 그리고선 자기네 장비 넣으려고 노력하지요. 중요 컨설턴트가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되요. 우린 그렇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 발주처가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 유 : 이 건물의 설계비를 책정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 신 : 총 공사비에 대비한 비율로 설계비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5%가 채 못 된 것이지요. 하지만 실행하며 공사비가 늘어났지만 설계비가 따라서 올라가진 않았고요. 신축설계보다 훨씬 고생했지요. 구조 트러스를 전부 잘라서 다시 벽에 고정했고, 구조안전진단도 했습니다. 공사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는데 벽을 먼저 만들고, 그 벽에 트러스를 붙이고 나머지 트러스를 잘라야 했으니까요. 리노베이션이니까 그렇게 시공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 돼요. 또 천정부분은 경량천정이라 슬라브를 새로이 쳐야 했지요. 공원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서 차음도 해야 했거든요. **아주 힘든 설계였지요.**

• 박 : 그럼 계약하실 때 어떤 계약서를 사용하셨나요. 혹시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쓰셨나요?

• 신 : 정부에서 쓰는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 박 : 그럼 협회에서는 그 계약서를 리뷰 해야겠네요. 공공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니 민간에서도 사용하긴 참 어렵겠군요. 그런데 현상설계에서 설계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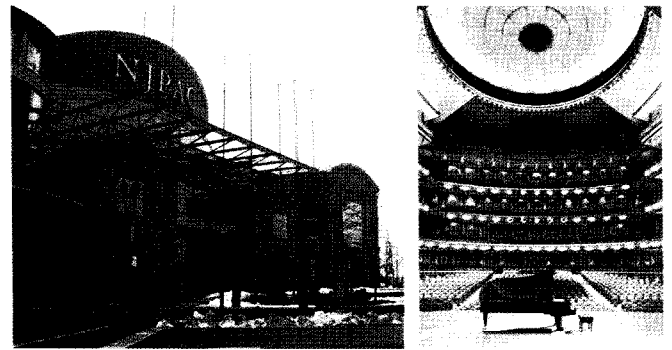
• 신 : 공사비 요율에 맞춰 협회기준에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의 경우는 어떤 경우 그 요율에서 계획 설계비 부분을 제외하는 것** 같습니다. 현상안을 제출했으니 계획 설계는 완성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유 : 지방에 잘 안 쓰이는 공연장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뮤지컬 전용관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어느새 우리나라도 뮤지컬을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 신 : 전 **모두 고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음향을 잘 사용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공연이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량이 좀 부족해도 커버되니까요. 오페라하고 뮤지컬은 매우 다릅니다. 정식 오페라 극장은 운영이나 건립이 매우 어렵지요.

• 박 : 국내에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 신 : 세종문화회관은 곤란하고, 예술의 전당 오페라 홀과 지금 계획되는 노들섬 등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적인 조건이 모두 아쉽습니다. **뒷무대가 더 커야** 합니다. 생음악을 하기 때문이지요. 뒤에 바텐이 내려오면 천이다 보니 모두 흡음됩니다. 그럼 소리가 퍼지



Njpac

질 못해요. 오페라에서 성악가의 육성을 쓰아주려면 일종의 반사벽인 무거운 세트물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전환하려면 무대 하부와 측면, 후무대 등 방대한 면적과 기계로 인해 천문학적 비용이 들게 되지요.

• 유 : 뮤지컬도 공연장이 여러 군데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브로드웨이처럼?

• 신 : 예, 사롯데, 엘지아트홀 등에서 뮤지컬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방공연을 이어서 하면 수익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금융 아트홀도 뮤지컬 장기공연이 가능하고, 일부 무대장치들을 변경해서 다양한 무대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공연장은 융통성, 가변성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각각 다른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뮤지컬 전용 극장은 새로운 분야이지요. '켓츠' 공연장 같은 것은 아예 한 공연을 중심으로 건축을 해버린 거지요.

• 유 : 신 소장님은 라이브 음향이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 신 : 물론 **음향이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지만,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더 바랍니다.**

• 박 : 이제 질문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마운 분이거나, 감사하는 내용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꼭 필요하거든요.

• 신 : 이 프로젝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한 것인데요. **강종호 실장님** 같은 경우, 또 **안형준 대리님**이 설계자와 함께 많은 이해를 나눴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 진행할까를 같이 협의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입찰에 의해 지방업체인 **남해종합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하였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난공사를 매우 잘 진행하였습니다. 감리하신 **건정건축**도 설계자의 요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사 중에 문광부의 **유인춘 장관**이 몇 번 방문하여 관심 가져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김중성** 선생께서 체육공간으로 만든 건물에 새로 문화시설을 채워 넣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도 계속 가서 감리 아닌 감리를 무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유 & 박 :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장과 또 신 건축사님과 다음 건축에 대해 알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잘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 주신 신동재 건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